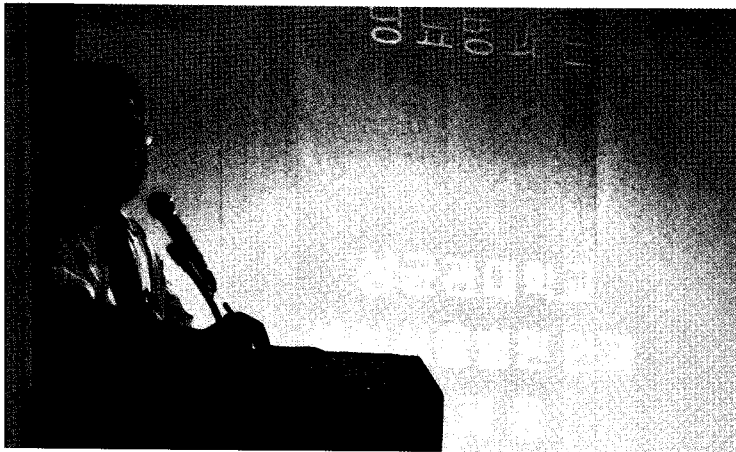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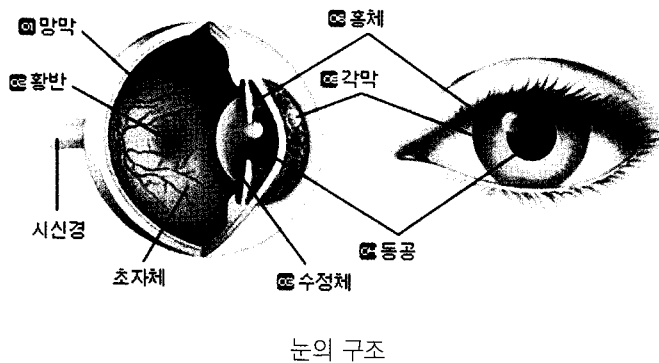


불행히도 고혈당은 미세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이에 본 당뇨캠프 참가자들의 열띤 관심으로 삼성서울병원 안과 강세웅 교수의 '당노인의 안과질환'이란 제목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 강의노트-의사가 전한 당뇨정보 당노인의 안과질환



당노인과 안과질환을 강의 중인 강세웅 교수



## 눈은 건강의 창이다

눈은 흔히 카메라에 비유된다.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필름 위에 상이 맺히듯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대상이 망막에 맺히고, 그것은 시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되어 반응이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면서 인상을 좌우하는데, 그 사람의 건강상태 또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이다. 피곤하면 눈에 핏줄이 서고 충혈 되면서 조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이렇듯 눈은 혈관조직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신체기관이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전신질환을 평가하기도 한다.

### 당노병과 눈

- 각막이상 : 각막의 손상으로 수분이 쉽게 들어가 부종이 잘 생기고, 눈 조직에 영양공급이 안됨
- 녹내장 : 안압상승에 따른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가 좁아짐
- 백내장 : 고혈당으로 인해 수정체가 두터워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됨
- 시신경병증 :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나 심해지면 갑작스런 시력저하가 올 수 있음
- 당뇨망막병증 :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당뇨에 의해 망막 미세혈관 손상으로 순환장애가 생겨 시력감소가 발생하는 합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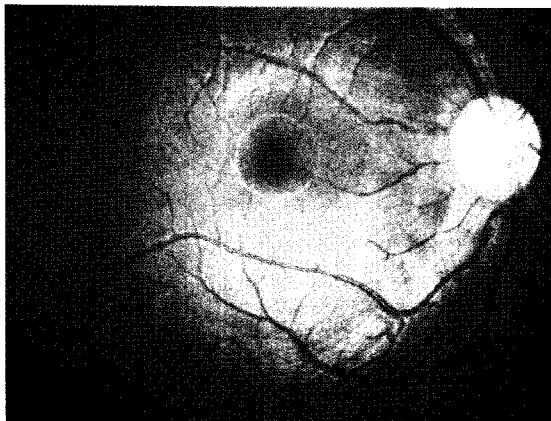
#### 당노병환자에게 생기는 눈의 변화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특별히 특징적이지 않고, 눈의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조절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 것이 능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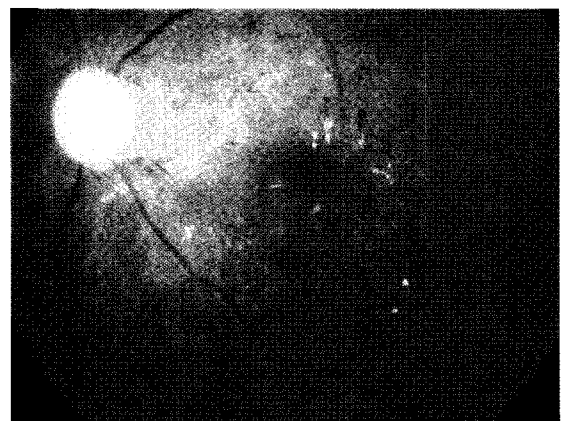
#### 피하기 어려운 당뇨망막증

위에서 설명한 당뇨병과 관련된 눈 질환 중 당뇨망막병증은 가장 유명하고 위험한 합병증이다. 강세웅 교수는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은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무리 혈당 조절을 잘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 당뇨망막병증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사실 때문에 현재 젊은 나이 때부터 당뇨병이 발생하는 추세와 더불어 수명은 점점 늘어나 당뇨 유병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요즘,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안타까움 또한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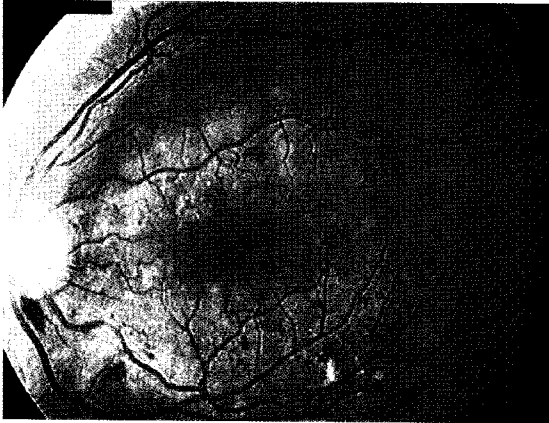
당뇨망막병증은 흔히 비증식과 증식의 2단계로 분류한다.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증의 증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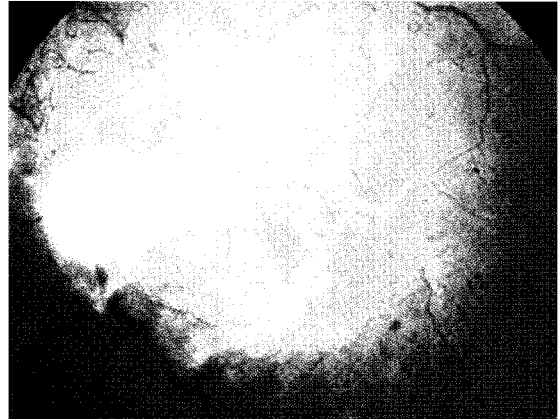
정상안저



당뇨망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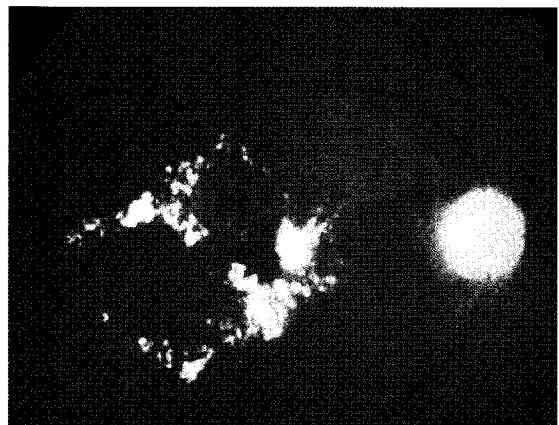


비증식성당뇨망막



증식성당뇨망막

망막내부에 국한되어 있는 질환으로 가벼운 정맥확장과 혈관벽이 탄력을 잃으면서 파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미세혈관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좀 더 진행하면 혈액성분이 빠져나와 망막이 붓고, 출혈이 생긴다. 점차 모세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늘어나고 망막내부에서 신생혈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망막의 중심부를 침범하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심해지면 망막이나 시신경유두 등에 까지 침범하여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발전, 갑작스런 유리체 출혈 또는 망막박리가 초래되어 심각한 시력저하가 발생한다.



황반부종

또한 당뇨망막병증의 어느 시기에나 당뇨황반부종(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반점인 황반부는 빛깔을 분간하는 힘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 혈액망막장벽의 불완전함으로 혈관투과성이 증가하여 부종이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당뇨병환자에서의 시력상실의 주요한 원인이다.

### 발전된 진단과 치료법으로 시력상실 걱정 덜다

당뇨망막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혈당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일단 망막증이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실명을 막기 위해서는 레이저치료, 수술(유리체절제술), 혈관생성인자 억제제 눈 속 주사 등이 불가피하므로 정기적인 안과검사로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 교수는 강조했다.

글 / 광정은 기자